

관계절 구문의 정보구조와 정보흐름 재현 전략

진 실 로
(세종대)

1. 서론

언어활동의 근본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청자에게 잘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적의 어휘와 문장 구조를 선택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태를 달리하거나 수식 구조를 달리함으로써 문장 요소의 배열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화자의 특정 구조 선호는 문장 요소들의 정보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주로 기존에 알려진 정보가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는 구정보-신정보 방식이 선호된다.

번역활동도 언어활동의 일부라는 점에서 번역의 근본 목적 역시 의사소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번역문 독자에게 원문의 정보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제는 원문의 정보구조가 번역 시 왜곡되기 쉽다는 점이다. 개별 문장의 정보구조 왜곡은 문장과 단락 차원을 넘어 텍스트 전체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 체계

가 달라 원문 요소의 배열과 번역문 요소의 배열이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구조 왜곡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현 위치 및 용법의 차이로 인한 번역 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관계절 구문을 대상으로 원문의 정보구조와 자연스러운 정보 흐름을 재현하는 번역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협조 원리와 구·신 계약

화자와 청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 협조한다. 그라이스(Grice 1975)는 이를 ‘협조 원리(cooperative principle)’라고 부르면서, 화자가 ‘참이고, 관련 있는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네 가지 격률(maxim)은 단순히 말을 잘 하기 위한 지침에 그치지 않고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가령 바깥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화자와 청자 모두 아는 상황에서 화자가 ‘날씨가 아주 좋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청자는 화자가 여전히 대화에 협조적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화자가 ‘참을 말해야 한다’는 격률을 일부러 어겼으며 그럼으로써 뭔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자의 발화가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꾀는 날씨에 대한 방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도록 의도된 것일 거라고 추측하게 된다.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와 청자가 협조한다는 그라이스의 협조 원리는 정보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문장 요소를 정보상태에 따라 구정보/신정보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이다. 프라하학파의 기능주의적 연구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그 정의와 식별 방식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Halliday 1967, Jackendoff 1972, Chafe 1976, Kuno 1980, Prince 1981, Firbas 1992, Lambrecht 1994 참조), 본 연구에서는 구정보를 ‘화자/저자 판단에 청자/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텍스트를 통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정보’로, 신정보를 ‘화자/저자 판단에 청자/독자가 모르고 있거나 텍스트를 통해 쉽게 추론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한다. 절이나 문장 성분의 정보상태는 일반적으로 강세, 어휘, 통사 요소에 의해 표현된다. 구어에서는 주로 신정보에 강세를 두어

표시한다. 어휘 면에서 대명사에 의해 언급된 정보는 구정보이고, 정관사는 주로 구정보에, 부정관사는 주로 신정보에 관련되고, 소유격은 문법적으로 다른 정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정보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문어에서는 어휘 외에도 분열문, 의사분열문 등의 복잡한 통사 기제가 동원된다.

거의 모든 자연 언어에서 평서문의 정보구조는 구정보-신정보 순으로 구성된다.¹⁾ 즉 일단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요소(구정보)에서 시작하여 알지 못하거나 추론하기 힘든 요소(신정보)로 이어진다. 이런 구성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청자 입장에서는 신정보를 접하기 전에 우선 구정보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을 더듬어볼 수 있으므로 정보 처리가 수월하다(Clark & Haviland 1977). 만약 신정보부터 접하게 되면 먼저 접한 신정보를 미결 상태로 둔 채 이후에 나올 구정보를 기다렸다가 다시 신정보와 구정보를 통합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신정보는 이미 아는 정보보다 더 충분히 기술될 필요가 있으므로(Quirk et al. 1985: 1361-62) 대개 길고 무거운 구조로 온다는 점도 청자의 정보 처리에 부담을 준다. 한편 구정보-신정보 순서는 화자에게도 유리하다(Arnold et al. 2000, Bock and Irwin 1980, Sridhar 1988, Wasow 1997). 구정보는 이미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구정보를 말하는 동안 신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어떻게 말할지 계획할 시간을 벌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유리한 만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양자는 문장 구성이 구정보-신정보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화자와 청자 간의 이러한 암묵적 약속을 ‘구-신 계약(given-new contract)’이라고 하며 이 계약에 따라 화자는 구정보를 신정보보다 먼저 제시하고, 청자도 화자가 구정보부터 제시하리라고 기대한다(Clark & Haviland 1977: 9). 따라서 특별한 문체적 효과를 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정보-신정보 순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이다.

그라이스의 ‘협조 원리’와 클라크, 하빌랜드의 ‘구-신 계약’은 구어텍스트를

1) 평서문 외의 다른 형태의 문장은 정보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문문 ‘Who left at precisely twelve o'clock?’의 경우에 ‘누군가 정확히 12시에 떠났다’는 것이 구정보이고,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것이 신정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신정보-구정보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전달 매체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한다는 점과 선형배열의 제약으로 한 번에 한 요소씩만 전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구어텍스트뿐 아니라 문어텍스트에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협조 원리의 세부 격률과 그에 대한 해석은 언어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담화는 본래 협조적이고, 협조의 일환으로 구·신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문장은 문장 자체를 위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일부와 텍스트의 일부로서 존재하므로 정보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텍스트에 흘러가도록 하나의 문장을 주변 환경에 정확히 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Enkvist 1978: 178).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떻게 배열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달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구조는 개별 문장보다 전체 텍스트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번역가는 원천텍스트의 명제적 내용 전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즉 정보구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전달하는 의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정보구조의 차이에 따라 실제 가독성(readability)에 차이가 나고, 번역문의 자연스러움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영한 관계절의 유형

관계절(relative clause)은 그 머리명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절로서, 관계화 변형으로 얻어지는 수식 부분을 관계절이라 하고 그 수식을 받는 부분을 머리명사(head noun)라고 부른다.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절은 머리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본 성격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영어 관계절은 문장 관계절, 명사적 관계절, 관형적 관계절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Quirk et al 1985: 1244-45).

- (1) a. They are fond of snakes and lizards, which surprises me.²⁾
 b. What surprises me is that they are fond of snakes and lizards.

- c. a'. Snakes which are poisonous should be avoided.
- b'. Rattlesnakes, which are poisonous, should be avoided.

(1a)에서 관계대명사 ‘which’는 ‘They are fond of snakes and lizards’라는 앞 문장 전체를 지시한다. 이처럼 관계대명사가 문장 전체를 지시하는 경우를 문장 관계절이라고 한다. 예문 (1b)는 관계대명사 ‘what’이 머리명사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명사적 관계절에 해당한다. (1c)는 가장 전형적 관계절인 관형적 관계절의 예이다. 관형적 관계절은 그 용법에 따라 다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나뉘는데, 위의 (1a')가 제한적, (1b')가 비제한적 관계절의 예이다.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장 관계절과 명사적 관계절은 비교적 쉽게 처리된다. 그러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관형적 관계절의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면에서 한국어와 차이가 크기에 번역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의 범주를 관형적 관계절에 한정하고, 이후로 ‘관계절’이라는 용어는 ‘관형적 관계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적어도 세 종류 이상으로 구분되는 영어 관계절과 달리 한국어에는 영어의 관형적 관계절에 해당하는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한다. 국어학의 입장에서는 관계절이 관형어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관형어란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서 여기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도 포함된다.

한국어 관계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형용사와 비교하면, 우리말의 형용사는 용언의 하나로서 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보인다. ‘물이 맑다’와 ‘물이 흐른다’에서 ‘맑다’는 형용사이고 ‘흐른다’는 동사지만 두 단어 모두 주어인 ‘물’에 대해 서술 기능을 보인다.

- (2) a. 그 여자가 예쁘다.
- b. 예쁜 그 여자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2a)에서는 서술적 기능으로, (2b)에서는 한정적 기능으로

2) 관계절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후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요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기로 한다.

로 사용하였다. 우리말 형용사는 서술 기능이 기본이므로 한정적 기능을 보일 때는 ‘-ㄴ/은’ 따위의 관형화소를 첨가하여 변형한다. 관계절은 단순문 차원을 넘어 복합문 구조에서 실현되지만, 한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매우 유사하다.

- (3) a. 순이는 성격이 좋다.
 b. 성격이 좋은 순이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 (4) a. 철수는 은행에서 일한다.
 b. 은행에서 일하는 철수는 숫자에 밝다.

예문 (2b)에서 형용사 ‘예쁘다’가 한정적 기능을 할 때 관형화소를 첨가하여 ‘예쁜’으로 변형하였듯이 예문 (3b)에서도 형용사 ‘좋다’에 관계화소(relativizer) ‘-ㄴ’을 붙여 ‘성격이 좋은’으로 관계절화 하였다. 예문 (4b)에서는 동사 ‘일하다’에 관계화소를 붙여 ‘은행에서 일하는’으로 관계절화 하였다. 관계화소는 관계절이 지닌 시제/상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머리명사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는’, ‘-(으)ㄴ’, ‘-(으)ㄹ’의 세 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용언의 종류와 관계절이 드러내는 시제와 상에 따라 형태가 약간씩 달라진다. 결국 한국어의 관계절은 ‘형용사+관형화소’의 단문 구조와 매우 비슷한 ‘용언+관계화소’의 구조이며, 이는 영어의 관형적 관계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관계절의 정보상태와 기능

영어 관형적 관계절은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구분된다. 제한적(restrictive) 관계절은 머리명사가 누구를 지시하는지 그 대상을 확인하는 데 일조한다. 이때 머리명사가 구정보이면 대체로 제한적 관계절도 구정보이고, 머리명사가 신정보이면 제한적 관계절도 신정보인 경우가 많다.

- (5) a. I like the girl.

- b. The girl is tall.
- c. The girl is standing in the corner.

(6) I like the tall girl who is standing in the corner.

예문 (5)의 (a)~(c)를 동일한 의미의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6)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소녀’는 ‘키가 크고’, ‘구석에 서 있다’. 만약 키가 작거나 방 한 가운데 서 있거나 구석에 앉아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가 아니다. 따라서 제한적 관계절은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청자/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신정보가 아닌 구정보의 성격을 띤다. 화자/저자가 ‘구석에 서 있는’ 소녀가 ‘내가 좋아하는 소녀’라고 말할 때 청자/독자가 이를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구석에 어떤 소녀가 서 있음을 청자/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구석에 누가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청자/독자는 “그래? 누가 서 있나?”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7) There are five students over there. The student whose father is a doctor is Susie.

위와 같은 화자의 말에 청자가 ‘Susie’를 찾아낼 수 있다면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성공한 것이다. 이 때 청자가 ‘Susie’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다섯 명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 학생이 한 명 있고 나머지 네 명의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라는 점과, 또한 다섯 명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청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면 ‘Susie’를 찾아낼 수 없고 따라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일시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그럴 경우 청자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아버지가 의사인 학생이 누구인데?” 등의 질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적 관계절이 구정보 머리명사를 수식할 때 화자/저자는 그 관계절을 통해 지시 대상을 한정하고 밝혀주지만, 이때 관계절이 담고 있는 정보는 청자/독자가 이미 아는 정보 중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구정보의 성격을 띤다.

제한적 관계절이 수식하는 머리명사는 구정보인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이 신정보 요소를 수식하기도 한다.

(8) There is a girl whose father is a doctor in my class.

위 예문에서는 머리명사 자체를 ‘a girl’이라는 신정보로 제시하고 있다. 청자/독자는 ‘a girl’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누구를 지시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므로, 이를 수식하는 제한적 관계절 역시 청자/독자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신정보 머리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관계절은 신정보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비제한적 관계절은 제한적 관계절과 달리 머리명사의 지시 대상을 밝혀주는 기능이 아니라 그 지시 대상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의미상 등위 관계(coordination)와 매우 유사하며 종속절로 표현할 수도 있다.

- (9) a. My brother, who has lived in America since boyhood, can still speak fluent Italian.
 b. My brother can still speak fluent Italian, and he has lived in America since boyhood.
 c. My brother can still speak Italian *although he* has lived in America since boyhood. (Quirk et al. 1985: 1259)

(9a)의 비제한적 관계절은 제한적 관계절과 달리 (9b)처럼 등위 접속의 의미이며, (9c)처럼 종속 접속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즉 (9a)의 관계절은 여러 형들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지낸 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한 명의 형이 있음을 제시하고 난 후에 그 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한적 관계절이 머리명사의 정보상태에 따라 구정보나 신정보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비제한적 관계절은 주로 신정보와 관련된다. 제한적/비제한적 관계절을 구분하기 위해 구어에서는 억양과 휴지(pause)를 사용하고, 문어에서는 관계절 앞에 쉼표를 사용한다(Biber et al. 1999, Comrie 1981, Keenan 1985, Quirk et al. 1985).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제한적/비제한적 관계절 간에 통사적, 음운론적 구분이 없고 오직 의미적으로만 구분이 가능하다. 가령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머리명사를 한정할 수 없으므로 비제한적 관계절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양인석(Yang 1972: 226)은 한국어 관계절에 대해 논하면서 연구 범위를 제한적 관계절에 한정하였고, 비제한적 관계절은 한국어에서 관계절이 아닌 접속(conjunction)의 한 유형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10) a. I bought a vacuum cleaner, and the vacuum cleaner is out of order.³⁾

(내가 진공청소기를 샀는데, 그 진공청소기가 고장났다.)

b. I bought a vacuum cleaner, which is (now) out of order.

영어로는 (10b)처럼 비제한적 관계절로 표현하면 되는 것을 한국어로는 (10a)처럼 두 개의 등위절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굳이 관계절로 표현하면 ‘내가 고장 난 진공청소기를 샀다(I bought a vacuum cleaner that was out of order)’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고 만다. 한국어는 관계절이 머리명사 앞에 위치하므로 사건의 순서가 바뀌어 물건을 사기 전에 이미 고장 나 있었다는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절은 그 출현 위치와 용법이 서로 달라 정보 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번역자가 원문 관계절의 정보상태와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원문의 정보구조가 왜곡될 수 있고 그만큼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독자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정보 차원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번역문에 재현하여 원문의 정보 흐름이 번역문에도 원활히 흐르도록 함으로써 원문 독자가 누리는 효과를 번역문 독자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황(Hwang 1990: 378)은 두 번째 절의 주어 ‘the vacuum cleaner’가 첫 번째 절의 목적어에서 쉽게 추출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I bought a vacuum cleaner and (Ø=it) is out of order(내가 진공청소기를 샀는데 고장 났다)’로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5. 관계절의 영한 번역

5.1 제한적 관계절의 번역

영어 제한적 관계절의 정보상태는 수식하는 머리명사의 정보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영어에서는 관사 등을 통해 어휘 차원에서 정보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관사는 대체로 구정보를, 부정관사는 대체로 신정보를 표시해준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머리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제한적 관계절의 정보상태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관사 체계가 없으므로 머리명사와 관계절의 정보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제한적 관계절의 속성상 항상 그 머리명사와 함께 출현하므로 번역 시 머리명사 자체의 정보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관계절의 정보상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제한적 관계절은 한국어 통사 구조에 맞춰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여 번역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 (11) a. [ST] Such is the tale, my sons, of the coming of the hound which is said to have plagued the family so sorely ever since.
(Conan Doyle 12)
- b. [TT] 아들들이, 바로 이것이 그 후부터 우리 가문에 그토록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그 사냥개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이다. (백영미 28)

[ST]의 관계절이 수식하는 머리명사 ‘the hound’는 이전에 언급되었던 요소로 구정보이다. 따라서 이를 수식해주는 관계절 역시 구정보로 볼 수 있다. [TT]에서는 관계절을 머리명사 ‘그 사냥개’ 앞으로 이동하여 한국어 어법에 맞게 번역하였다. 한국어에 관사는 없지만 ‘사냥개’ 앞에 지시사 ‘그’를 두어 구정보임을 표시하고 있다. [ST]의 머리명사 ‘the hound’와 [TT]의 머리명사 ‘그 사냥개’ 모두 구정보이므로 이들을 수식하는 관계절의 정보상태 역시 구정보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11b) [TT]는 원문의 정보구조가 왜곡되지 않은 바람직한 번역문이다.

그러나 구정보-신정보 구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스러운 번역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2) [ST] I had met a man who died yesterday. (이종인 1998: 84)

구정보 신정보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신 전략에 따라 구정보 요소를 주부에, 신정보 요소를 술부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예문 (12)는 위와 같이 구정보-신정보 순으로 분석된다. 대명사는 그 자체로 구정보임이 분명한 데다 담화의 첫 문장 외에는 대부분 구정보가 문두에 위치하므로 위 문장의 주어 ‘I’는 구정보로 볼 수 있다. 술부 ‘had met a man’은 주어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정보로 분류된다. 제한적 관계절 ‘who died yesterday’가 수식하는 머리명사 ‘a man’은 신정보이므로 관계절 역시 신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장은 구정보-신정보 순으로 배열된 무표적 구조이다.

제한적 관계절을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여 번역하는 일반적 전략에 따라 위의 예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번역문이 도출된다.

(13) [TT1] 나는 어제 죽은 사람을 만났다. (필자 번역)

구정보 신정보

일반적으로 주부에 구정보를, 술부에 신정보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의 한국어 번역문 역시 주부를 구정보로, 술부를 신정보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원문 (12)에서는 머리명사 ‘a man’의 정보상태가 분명히 드러났으나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어 머리명사 ‘사람’의 정보상태가 한눈에 파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만났다’라는 술부가 신정보이므로 이를 수식하는 관계절 ‘어제 죽은’도 신정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번역문 (13)의 정보구조 역시 원문과 동일하게 구정보-신정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문의 정보구조를 유지했다는 점과, 구-신 전략이 정보의 원활한 흐름에 유리하는 점에서 위 문장은 이론상 바람직한 번역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도출된 번역문 (13)은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났다는 의미로 읽혀 논리상 부적절한 문장이

되고 말았다. 영어 원문에서는 동사의 과거완료와 과거형을 통해 사건의 선후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데다 관계절이 후치수식하므로 문장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동사의 완료시제 형태가 없어 표면상 시제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며 관계절이 전치수식하므로 시간의 흐름과 역순으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어제’의 수식 대상이 ‘죽은’이 될 수도 있고, ‘만났다’가 될 수도 있어 중의성(ambiguity) 문제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구정보-신정보 구조로 배열하여 원문의 정보구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번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사실 번역가는 정보구조 유지보다 정보흐름에 더 민감해야 한다. 번역이 언어활동의 일부라는 점에서 번역의 궁극적 목표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번역문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때 번역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정보-신정보 구조’도 결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담화에서 정보흐름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구정보/신정보의 구분 외에도 언어별 어순의 차이, 억양 단위의 차이 등 여러 요소가 있고, 언어마다 그 특징이 어느 정도 달라진다. 그러나 정보가 자연스럽게 흐를 때 인간의 정보 처리가 용이해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자연스런 정보흐름이란 담화를 풀어나가는 데 관련된 정보를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제시할 때 성취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라면 시간 상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제시하며, 이유-결과 순으로 제시하고, 두 명의 참여자가 등장할 때 서로 사회적 혹은 친족 관계에 의해 연관되어 있다면 그 중 더 중요한 참여자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다(Hwang 1994). 언어 특성상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정보 제시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번역가는 기능적 등가가 형식적 등가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목표언어에서 자연스러운 정보흐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위의 예문 (12)를 다시 번역하면 아래 (14)와 같다.

(14) [TT2]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제 죽었다. (필자 번역)

시간 상 그 사람이 죽은 사건보다 그 사람을 만난 사건이 먼저 발생했으므로 자연스러운 정보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위 번역문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문장 요소를 배열하였다. 그리고 ‘예전에’라는 시간 부사어와,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단절의 의미인 ‘~한 적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 선후 관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원문과 동일한 배열구조가 재현되어 번역문 독자도 원문 독자와 동일한 순서대로 정보를 접하고 내용의 왜곡 없이 용이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 정보구조 대신 시간 순서를 따라 번역하는 경우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ST] “We hope this will be part of the healing process for those who lost loved ones,” said Chamroen Tankasem, a government official in southern Thailand, a tropical paradise that was turned into a graveyard in a matter of minutes.

(CNN 한글뉴스 2006. 12. 26.)

밑줄 친 관계절은 ‘a tropical paradise’를 머리명사로 하는 제한적 관계절이므로 일반적인 번역 전략에 의하면 ‘몇 분 만에 무덤으로 변한 열대 낙원’ 식으로 옮긴다. 그러나 이 번역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데, 발생 시각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은 발생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정보흐름상 좋지 때문이다. 그 점에서 CNN 한글뉴스의 다음 번역문은 적절해 보인다.

- (16) [TT] “우리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의 부분이 되길 바란다”고 태국 서부 지역의 정부 관리가 밝혔다. 이 지역은 열대 낙원이었으나 쓰나미 발생 직후 몇 분 만에 무덤으로 변했다. (CNN 한글뉴스 2006. 12. 26.)

원문에서 한 문장 내에 포함됐던 ‘southern Thailand, a tropical paradise’가 둘로 나뉘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은 별도로 하고 관계절의 번역에만 집중해보자. 시간상 먼저인 ‘열대 낙원’을 앞에 제시함으로써 한결 자연스러

은 번역문이 되었고 그만큼 독자의 정보 처리 부담도 줄었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점은 원문 요소의 배열순서와 번역문 요소의 배열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원문 독자는 ‘a tropical paradise’를 먼저, 그 다음에 ‘a graveyard’를 접하게 되는데, (16)과 같이 시간 순서에 따라 번역하면 번역문 독자도 ‘열대 낙원’을 먼저, ‘무덤’을 나중에 접함으로써 원문 독자와 동일한 순서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17) a. [ST] This began a barrage of questions that lasted nearly two hours.
 b. [TT1] 이렇게 해서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된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 (필자 번역)
 c. [TT2]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질문공세는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됐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51집 54)

[TT1]은 일반적인 번역 전략대로 영어 관계절을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여 번역했다. 시간 선후 관계로 따지면 일단 질문이 시작되는 게 먼저이고, 그 후에 2시간 동안 계속 여러 질문들이 이어진다는 흐름이다. 그러나 [TT1]의 번역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내용이 먼저 제시됨에 따라 마치 시간의 흐름이 역류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내용 전달은 가능하나 정보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정보 처리 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장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보다는 원문 요소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옮긴 [TT2]가 한결 자연스럽게 정보흐름도 원활하다.

5.2 비제한적 관계절의 번역

영어 비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두어 제한적 관계절과 구분한다. 머리명사 뒤에서 그것에 관한 상세 정보를 추가하며 따라서 신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관계절은 머리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한 가지 형태밖에 없으며, 제한적인지 비제한적인지의 구분은 통사적 형태가 아니라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고유명사를 머리명사로 하는 경우에 고유명사는 그 특

유의 성질 때문에 더 이상 한정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비제한적 관계절과 어울린다.

- (18) [ST] Since Rodger Baskerville, Sir Charles's younger brother, died unmarried, the estate would descend to the Desmonds, who are distant cousins. (Conan Doyle 45)

위 예문에서 ‘Desmonds’는 사람 이름이므로 뒤에 나오는 비제한적 관계절은 그 인물의 신분을 한정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추가 정보만 제공한다. 따라서 이 관계절은 신정보로 분류된다. 이를 한국어 통사구조에 맞춰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19) [TT] 찰스 경의 막내 동생 로저 바스커빌이 독신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영지는 먼 사촌뻘 되는 데스먼드 씨에게 돌아갈 겁니다.
(백영미 82)

위 예문 (19)에서 밑줄 친 부분은 ‘데스먼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비제한적 관계절에 속한다. 따라서 원문 (18)의 관계절과 동일하게 신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관계절은 머리명사 앞에서 전치수식하는 한 가지 형태뿐이므로 영한번역 시 관계절은 그 용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영어의 비제한적 관계절을 전치수식구조로 번역하면 정보구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머리명사 자체의 정보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 데다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을 구분하는 통사기제가 없으므로, 영어 원문에서 신정보로 제시된 관계절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구정보로 잘못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상태의 변화는 곧 내용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 (20) a. [ST] The clock, which is broken, is in the drawer.
b. [TT1] 그 고장난 시계는 서랍에 들어 있다.

c. [TT2] 그 시계는 고장이 나서 서랍에 들어 있다.

화자가 지금 어떤 ‘시계’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화자 생각에 청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위 [ST]는 지시 대상이 분명한 바로 ‘그 시계’에 대해 비제한적 관계절을 통해 ‘고장난 상태’라는 신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화자는 청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그 시계가 지금 고장 나서 서랍에 들어 있다’는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다. 만약 비제한적 관계절의 정보상태를 무시하고 이를 제한적 관계절 번역의 일반 전략대로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여 번역하면 (20b)와 같은 번역문이 도출된다. (20b) [TT1]은 마치 ‘시계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고장난 것은 서랍에 들어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즉 관계절 ‘고장난’이 ‘시계’에 대해 신정보를 추가하기보다 화자가 염두에 둔 여러 시계 중에 하나를 한정하는 구정보의 역할을 하는 인상을 준다. 그 결과 관계절의 정보상태가 달라지고 이는 내용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어 비제한적 관계절의 정보상태(신정보)를 번역문에서 뚜렷이 표시하려면 관계절 외에 다른 통사 기제가 필요하다. 전문번역가와 이론가들은 문장을 두 부분으로 분할하거나, 그 사이를 접속어로 연결하라고 조언한다(김정우 2004: 55, 서계인 2004: 195). 이는 한국어에서 비제한적 관계절은 관계절이 아닌 접속의 유형으로 사용된다는 양인석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전략을 적용하여 다시 번역하면 (20c) [TT2]의 구조가 된다. [TT2]는 비제한적 관계절을 머리명사 뒤에 두고 ‘접속사+대명사’로 바꿔 ‘고장이 나서’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여러 시계 중에 고장난 시계를 지시하는 구정보의 기능이 아니라, 화자가 염두에 두고 지시하는 시계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시계에 대해 ‘고장난 상태’라는 신정보를 전달하는 원문 관계절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비제한적 관계절의 신정보 추가 기능을 재현함으로써 원문의 내용을 왜곡 없이 잘 전달하는 바람직한 번역이 되었다.

이처럼 영어 비제한적 관계절은 원문의 정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접속 관계로 번역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다.

(21) [ST] The fire burned for nearly 12 hours after the blast, which happened around 1 a.m. local time (7 p.m. ET Monday) before it was brought under control, Orebiyi said.⁴⁾

(CNN 한글뉴스 2006. 12. 28.)

위 예문의 비제한적 관계절을 일단 정보구조에 맞춰 접속 유형으로 번역하면, 관계절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불은 폭발 후에 거의 12시간 동안 지속됐다’와 ‘그 폭발은 현지 시간 새벽 1시에 일어났다’로 번역된다. 부사절 ‘before it was brought under control(꺼지기 전까지)’은 첫 문장과 의미가 매우 긴밀하므로 굳이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분할한 두 문장을 접속사로 묶은 다음, 문미의 화자를 밝혀주면 최종 번역은 다음과 같다.

(22) [TT1] 불은 폭발 후에 거의 12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그 폭발은 현지 시간 새벽 1시에 일어났다고 오리비이는 말했다. (필자 번역)

위 번역문은 원문의 정보구조가 잘 반영되고 원문과 어순도 비슷하지만, 정보흐름 면에서는 약간 어색하다. 불이 지속됐다는 것과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건 사이에는 시간상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데, 먼저 일어난 폭발 사건이 뒷부분에 제시된 탓에 문장요소의 배열순서와 사건전개 순서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CNN 한글 뉴스의 번역문은 발생 시간 순서에 맞춰 폭발 사건부터 제시하고 있다.

(23) [TT2] 오리비이는 현지시간 새벽 1시에 일어난 폭발 후 거의 12시간 동안 불길 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CNN 한글뉴스 2006. 12. 27)

위 번역문은 원문과 정보구조가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폭발이 일어난 시각

4) 원문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만 문맥상 관계절이 삽입된 형태로 봐야하므로 before 앞에 쉼표가 생략된 것 같다.

이 현지시간 새벽 1시였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신정보로 제시했지만 번역문에서는 여러 폭발 중 새벽 1시에 일어난 바로 그 폭발이라는 식의 구정보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 순서에 따라 제시됨으로써 독자가 이해하기에 한결 좋은, 즉 정보흐름이 한결 원활한 문장이 되었다. 단, 원문에서 문미에 제시된 오리비이가 번역문에서는 문두에 제시되어 문장 전체의 주제구조가 달라진 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적절한 조정으로 보인다.

(24) a. [ST] The tiny dark-haired child was hugging a photograph of her father, who had died nine months earlier.

(『리더스 다이제스트』 51집 18)

b. [TT1] 검은 머리의 작은 딸 아이가 아빠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는데, 아빠는 9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필자 번역)

c. [TT2] 검은 머리의 작은 딸 아이가 9개월 전에 돌아가신 아빠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앞의 책 18)

위 예문의 경우에도 [ST]의 비제한적 관계절을 접속문으로 처리한 [TT1]보다, 관계절을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여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한 [TT2]가 좀 더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런 번역 전략이 시간 선후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논리상의 전후 관계, 즉 원인과 결과 등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5) 사실 이 예문에서는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구조만 따져도 [TT2]처럼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아빠는 여럿이 될 수 없고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ST]의 ‘her father’를 고유명사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한정 기능은 하지 못하고 신정보만을 제공하므로 거의 항상 비제한적 관계절이 온다. 이 절의 서두에서 논한 대로 한국어에서도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그 의미상 비제한적 관계절로 본다. 그런 점에서 위 [ST]의 비제한적 관계절은 고유명사를 수식하므로 한국어로 번역 시 머리명사 앞으로 이동하여 번역해도 정보구조가 왜곡되지 않는다. 따라서 [TT2]는 원문의 정보구조도 유지하고 시간의 흐름에도 잘 맞는 바람직한 번역문이라고 할 수 있다.

(25) [ST] Company spokesman Haruhiko Maeda said customers were having trouble calling India and the Middle East, which usually use the cables near Taiwan. (CNN 한글뉴스 2006. 12. 28.)

위 예는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뉴스 기사문의 일부이다. 비제한적 관계절이므로 접속문을 이용해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26) [TT1] 매다 하루히코 회사 대변인은 고객들이 인도, 중동 국제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들 지역이 보통 대만 인근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필자 번역)

문장 앞 절은 고객들이 일부 전화 통화에 불편을 겪는다는 피해 상황이고, 그리고 뒷 절에는 그 지역들이 통화가 어려운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즉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므로 그 인근 케이블을 사용하는 인도, 중국 국제 전화 통화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논리 관계가 결과-원인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CNN 한글뉴스는 이를 원인-결과 순으로 바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27) [TT2] 매다 하루히코 회사 대변인은 고객들이 대만 인근 케이블을 사용하는 인도, 중동 국제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CNN 한글뉴스 2006. 12. 28.)

원인에 해당하는 관계절 부분이 머리명사 앞에 위치하여 원인-결과 순으로 문장이 재배열되었다. 문장 요소의 배열순서와 논리 전후 관계가 일치하므로 원인을 나타내는 표지 ‘~때문에’를 사용하지 않고도 논리관계가 명백히 표현되었으며 (26) [TT1]보다 훨씬 간결한 구조로 번역되었다.

5. 결론

영어와 한국어 관계절은 출현위치와 용법이 크게 달라 원문의 형태를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문에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번역해야 한다. 문장 요소의 기능은 그 요소가 문장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와 연관되며, 이는 다시 그 요소의 정보상태와 직결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과 의도가 독자에 의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의 흐름을 최대한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번역자는 우선 원문 관계절의 정보구조를 파악하여 번역문에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보구조에 충실했는데도 의미상 어색한 경우에는 시간과 논리의 전후 관계에 따라 문장 요소 순서를 재배열하여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에 번역문 독자도 원문의 독자가 원문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번역의 최종 목표인 의사소통의 성공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우. 2004. 『영어번역 ATOZ』. 서울: 동양문고.
- 백영미 옮김. 2002. 『바스커빌 가문의 개』. 서울: 황금가지. (A. Conan Doyle. 1975.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New York: The Viking Press.)
- 서계인. 2004. 『실전 영어번역의 기술』. 서울: 북라인.
- 서정수. 1996. 『현대국어문법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종인. 1998. 『전문번역가로 가는 길』. 서울: 을파소.
- 한효석. 1994.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영한대역 리더스다이제스트』 51집. 서울: 두산 잡지BU.
- CNN 한글뉴스에서 발췌함 <http://cnn.joins.com/>
- Arnold, J. et al. 2000. Heaviness vs. Newness: The Effects of Structural Complexity and Discourse Status on Constituent Ordering. *Language* 76, 28-55.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 Routledge.
- Biber, D. et al.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lum-Kulka, S.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J. House and S. Blum-Kulka, eds.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in Transl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Tübingen: Gunter Narr.
- Bock, J. and D. Irwin. 1980. Syntactic Effects of Information Availability in Sentence Produc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9, 467-484.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Li & S. Thompson,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pp. 27-55.
- Clark, H. & Haviland, S. 1977. Comprehension and the Given-New Contract. In: R. Freedle, ed. *Discours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pp. 1-40.
- Conan Doyle, A. 1975.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New York: The Viking Press.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 Blackwell.
- Enkvist, N. 1978. Contrastive Text Linguistics and Translation. In: L. Grähs, G. Korlén, & B. Malmberg, eds.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erne: Peter Lang, pp. 169-188.
- Firbas, J. 199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ce,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 New York: Academic Press, pp. 41-58.
- Halliday, M.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wang, S. 1990. The Relative Clause in Narrative Discourse. *Language*

- Research*, 26(2), 373-400.
- _____. 1994. Relative Clauses, Adverbial Clauses, and Information Flow in Discourse. *Language Research*, 30(4), 673-706.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Keenan, E. 1985. Relative Claus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1-170.
- Kuno, S. 1980. Functional Syntax. In: E. Moravcsik & J. Wirth,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3. Current Approaches to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pp. 117-135.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nce, E.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pp. 223-254.
- Quirk, R.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ridhar, S. 1988. *Cognition and Sentence Production: A Cross-linguistic Study*. New York: Springer-Verlag.
- Vande Kopple, W. 1982. The Given-New Strategy of Comprehension and Some Natural Expository Paragraph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1(5), 501-520.
- Wasow, T. 1997. End-Weight from the Speaker's Perspectiv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6. 3, 347-362.
- Yang, I. 1972. *Korean Syntax*. Seoul: Backhap Publishing Co.

[Abstract]

**Translation Strategies for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Information Flow of Relative clauses**

Chin, Silo
(Sejong University)

To communicate successfully a sender (speaker/writer) attempts to deliver a message in the most effective manner so that a receptor (hearer/reader) can understand it. Further, it becomes important for a translator to carry the source text to the target reader in the easiest possible manner so that the latter comprehends it, and to make information “flow”. To achieve this goal, he/she needs to analyze the sentences of the source text at the level of information.

The elements of a clause or sentence can be divided into given information and new information, depending on their status. While given information refers to the information that the sender believes the receptor is already aware of or can infer contextually, new information refers to the information that the sender assumes the receptor to be unaware of or that which the receptor cannot infer contextually. Generally, it is more effective to first provide the given information and then the new information. Although this is a very common structure in all languages, it is expressed in different ways in various languages, which can cause the distortion of information structure and information flow.

In the case of relative clauses, there are frequent translation problems due to syntactic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useful strategies to translate relative clauses: First, translators need to be careful about not distorting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 source text in the

target text, and second, they are required to renounce the given-new strategy when it no longer agrees with the time sequence or logical relations.

▶ Key Words: given/new information, information structure, information flow, relative clause

진실로

세종대학교 / 강사

sunrise12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5일